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過程에 대하여

金 周 弼*

I. 序 論

1.1. 본고에서는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교체와 관련되는 표기와 음운현상에 주목하면서, 중세국어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音韻史의 問題의 一端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을 확인하고, 그 교체환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表記와 音韻現象의 共時的인 特性을 通時的인 觀點에서 說明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2. 피동접미사는, 사동접미사와 함께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15세기 국어의 共時的인 狀態로서의 記述的인 作業과, 그 결과를 토대로 15세기 이전의 형태를 재구하고 그 변화를 규칙화하려는 通時的인 作業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2.1. 15세기 국어에 대한 記述的인 作業의 主要業績으로 安秉禧(1959, 1967), 李崇寧(1961, 1981), 南廣祐(1962), 許雄(1964, 1975), 李相億(1980), 韓在永(1984)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論著들은, 피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을 추출하고, 각 이형태들이 교체되는 환경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저에서는, 피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이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 각자의 이형태 목록이 작

* 박사과정

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된 이형태들이 출현하는 각 환경을 분류하고 있다. 가령 피동접미사의 경우 安秉禧(1959)에서는 ‘ㄹ, 이, 히, 기’ 등 4개의 이형태를 李崇寧(1961, 1981)에서는 ‘이, 어, 히’ 등 3개의 이형태를, 南廣祐(1962)에서는 ‘이, 히, 리, 기’ 등 4개의 이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나, 許雄(1964, 1975), 安秉禧(1967), 李相億(1980), 韓在永(1984)에서는 ‘이, 히, 기’ 등 3개의 이형태를 기본목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기본목록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를 추출하는 구체적인 방법하에서 그 이형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1.2.2. 피동접미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通時的인 觀點에서 이와 유사한 사동접미사의 기원적인 어형을 再構하고, 그 재구형으로부터 分化되는 이형태 교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李基文(1972 b)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李基文(1972 b)에서는 사동접미사를 대상으로 하여 * γ 를 재구하고, * γ 에서 hi, fi, ki, i로 발달하는 과정을 國語音韻史에 대한 폭넓은 識見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

李基文(1972 b)에서, 재구형 * γ 가 각 이형태로 分化되는 과정을 토대로 * γ 의 변화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²⁾

$$(1) \text{ a. } \begin{array}{l} *X\gamma i > X'p^{hi} \\ *Xt\gamma i > X't^{hi} \\ *Xc\gamma i > X'c^{hi} \end{array} \Rightarrow * \gamma > h / \left\{ \begin{array}{l} p \\ t \\ c \end{array} \right\} \text{ ---}$$

$$\text{ b. } \begin{array}{l} *Xm\gamma i > X'mgi \\ *Xs\gamma i > X'ski \end{array} \Rightarrow * \gamma > k / \left\{ \begin{array}{l} m \\ s \end{array} \right\} \text{ ---}$$

- 1) 이들 논저들에서도 ‘리’에 대하여 특수한 환경에서 출현한다고 주석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가 다른 이형태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검토에 의하면 능엄경언해 이후에 ‘누르-’에 대한 피동형은 ‘놀이-’와 ‘눌리-’가 공존하고 있다.
- 2) (1)에서 기호 X는 어기의 마지막 자음이나 모음을 제외한, 용언의 나머지 환경을 표시하며, X'는 시기에 따른 X의 변화형을 고려한 기호이다. (1b)에서 ㅁ 뒤의 ‘기’는 gi일텐데 15세기 음소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k의 異音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술하게 될 ‘리’에 대해서도 그 음성적 실현은 li이었지만 ri로 표기한다.

$$\begin{aligned}
 \text{c, } & \left. \begin{array}{l} *Xz\gamma i > X'z\eta i \\ *Xr\gamma i > X'r\eta i \end{array} \right\} \Rightarrow *r > \eta / \left\{ \begin{array}{l} z \\ r \end{array} \right\} \text{---} \\
 \text{d, } & \left. \begin{array}{l} *XV\gamma i > X'V i \\ *Xk\gamma i > X'k i \end{array} \right\} \Rightarrow *r > \phi / \left\{ \begin{array}{l} V \\ k \end{array} \right\} \text{---}
 \end{aligned}$$

①은, 재구형 * γi 에서 15세기의 이형태 $hi, ki, \eta i, i$ 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15세기 이형태들의 상호관계를 통시적인 면에서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 γ 의 변화과정에서, 선행하는 용언 어근의 음운론적인 환경에 공통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李基文(1972 b)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有氣音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i 가 통합되는 것으로 分析했던 기존의 논의 결과를 추가하면 * γ 의 변화에 대한 환경의 이질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질성이, 이형태를 추출해 내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먼저 해당 접미사의 이형태 목록을 선정하고 그 교체환경을 분류했던 기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그 자체 많은 불규칙성을 노정하고 있는 사동접미사를 대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겼다고 믿는다. 본고에서는 피동접미사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그것은 15세기 피동접미사에 대한, 본고의 체계적인 分析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다.

1.3. 피동접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먼저 15세기 국어에서 드러나는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의 相似性과 相異性을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³⁾

(2)

	피 동 접 미 사	사 동 접 미 사
相 似 性	1) 이형태에 “이’계, 히, 기*가 있음 2) ‘이’계 이형태에 ‘이, 이, 여, 리’가 있음 3) 용언 어근의 마지막 음절과 접미사의 성조가 LH로 실현됨 4) ·나 一로 끝나는 용언어근이 ‘이’계 이형태를 만나도 ·, 一가 탈락하지 않음	

3) 피사동접미사의 성조실현에 대하여는 金完鎭(1972), 李基文(1972 a), 韓在永(1985) 등을 參照.

	피 동 접 미 사	사 동 접 미 사
相	1) 이형태 목록이 “이’계, 히, 기”뿐임 2) “이’계, 히, 기” 등 이형태들의 통합이 규칙적임	1) “이’계, 히, 기” 이형태 외에 기원이 다른 “오/우’계, 호/후, 고, <” 등 다수가 있음 2) “이’계, 히, 기”의 통합이 규칙적이지 못함
異	i) 비, 디, 기 다음에 ‘히’가 통합됨 ii) 스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히’가 통합됨.	i) 비, 디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히’가 통합되지만 기이나 리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이’가 통합됨(그러나 ‘히’가 통합되는 예도 발견됨). ii) 스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대부분 ‘히’가 통합되지만 ‘이’가 통합되는 예도 발견됨.
性	iii) 르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서도 ‘디/르, 디’ 불규칙 용언의 경우처럼 ‘이’가 규칙적으로 통합됨.	iii) 르불규칙 용언과 ‘르/르’ 불규칙 용언 다음에는 ‘이’가 통합되지만 르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이’가 통합됨

도표 (2)는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피사동접미사를 함께 다루어온 이유는 상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표 (2)를 보면 상사성 못지 않게 상이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사성에서 보여주는 사동접미사의 특성은, 피동접미사와 달리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은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즉 피동접미사는 기, 디, 비, 스 등 폐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근 다음에 규칙적으로 ‘히’가 선택되지만, 사동접미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디, 비, 스 등으로 끝나면 피동접미사의 경우처럼 ‘히’가 선택되지만, 기이나 리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는 ‘이’가 선택되는 특이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 리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 항상 ‘이’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는 리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 ‘히’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아히로 윗히 동어리 글키고(←글-, 杜初 15:4)

스므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피동접미사의 경우처럼 ‘히’가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4)의 예는 ‘이’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4) 能히 썰리 비를 누리와 이 大地를 저지라(←저-, 月釋 10:101)

가, 리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이’가 통합되는 특이성이나, 리, 스므로 끝나는 용언 뒤에 통합되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은, 결국 15세기에 이미 사동접미사의 통합에서는 음운론적인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르로 끝나는 용언 뒤에 통합되는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사이에는,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르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피동접미사는 ‘이’가 선택되지만⁴⁾, 사동접미사는 ‘이’가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르/르’ 불규칙용언이나 ㄷ불규칙용언 뒤에서는, 피동접미사나 사동접미사 모두 ‘이’가 선택되고 있다.

(5) 르로 끝나는 용언 뒤에 통합되는 피동접미사

걸이며(←걸-, 月釋 2:33), 걸이노노(←걸-, 杜初 23:33), 설이노니(←설-, 月釋 8:36), 들이니(←들-, 月釋 7:10), 몰여(←몰-, 月釋 15:35), 물여(←물-, 釋15:37), 밀유미(←밀-, 杜初 16:20), 붙들인(←붙들-, 月釋序:23).

(6) 사동접미사의 경우

저스려(←저-, 月釋 7:18), 그우릴(←그-, 月釋 1:19), 기우린(←기-, 杜初 7.31), 드읏華瓶(←들-, 月釋 10:119), 버리고(←벌-, 月釋

4) 르다음의 사동접미사 ‘이’ (또는 특수어간 교체룰 보이는 語辭들에서도 마찬가지임)는 fi였다라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李基文(1962, 1972 a, b). 본고에서도 ㅁ이 적극적 기능(fi에 대한 표기)과 소극적 기능(alif)의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는 논의를 받아들여, 그리고 ‘이’와 ‘i’의 분포적 특성도 중시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르다음에 통합되는 사동접미사의 이형태를 fi라고 본 李基文(1972 b)에서 생기는 문제는, 사동접미사의 경우 ‘르/르’ 불규칙용언이나 ㄷ 불규칙용언의 르다음에 통합되는 ‘이’와 달리 르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i’가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의 ‘i’를 fi로 보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피동접미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 120), 조리나라(←출-, 法華 1 : 52)

이상에서 지적한 피사동접미사의 상이성 외에 사동접미사는 “이’계, 히, 기” 외에 ‘호/후, 오/우, 고, ㄱ/(으)’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그 기원이 다르기는 할지라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여럿이 존재할 때, 그 형태들 상호관계가 언어변화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본고에서 우리는 피사동접미사의 상사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형태나 음운론적 顯現方式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이’계, 히, 기” 이형태들의 통합에 대한 相異性的의 원인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이 기원적으로 어떤 단일형에서 출발하였고, 그 단일형에서 각 이형태로의 分化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15세기에 이형태 통합에 있어서 좀더 규칙성을 보여주는 피동접미사를 대상으로 그 分化過程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피동접미사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1.4. 피동접미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다. ‘이’계 접미사인 ‘ㅣ, 이, 예, 리’의 음성적 실현과 표기,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문제, ‘이’계와 ‘히, 기’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문제, ·나 --로 끝나는 용언이 ‘이’계 피동접미사를 만나는 경우에 ·, --가 탈락하지 않는 음소결합의 특이성, 불규칙용언과 규칙용언의 피동사 형성에 있어서의 차이 등, 우리는 피동접미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15세기 피동접미사에 대한 共時的, 通時的인 作業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章에서는 먼저, 15세기 피동접미사의 교체형과 그 교체환경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결과를 되돌아 보고, 표면적인 分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몇몇 경우에 대해 체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면서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를 析出하고, 아울러 각 이형태가 통합되는 환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Ⅱ章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Ⅲ章에서 國語音韻史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通時的인 音韻變化에 대한

5) analogy, paradyne levelling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간단한 추론을 하게 될 것이며, IV章에서는 우리의 논의를 要約한 다음,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課題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II.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통합환경

2.1. 15세기 국어에서 피동접미사는 표면적으로 ‘ㅣ, 이, ㅁ, 리, 히, 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근래의 논의에서는 ‘이, 히, 기’만을 기본목록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ㅣ, ㅁ, 리’도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이’와 동일시하기 이전에, ‘ㅣ, ㅁ, 리’가 나타나게 된 이유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도 일단 이형태 목록으로 인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 먼저 기존의 분석방법에 따라 피동접미사의 각 이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을 ‘ㅣ, 이, ㅁ, 리, 히, 기’의 순서대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ㅣ : 有氣音이나 시, 또는 일부 母音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된다.

- (7) 호박아 물리 조치샤(←쫘-, 龍歌 35章)
 七寶ㅣ 이려 자 우희 차 두피고(←뉘-, 月釋 8:18)
 喧鼻호 世俗스이레 잇겨 든노라(←외-, 杜初 24:53b)
 온썸스굴워리 답사쳐시니(←답상-, 杜初 24:34a)
 울마 곶히여 쓰여 朝廷을 빛내놋다(←쓰-, 杜初 11:5)

2) 이 ; ㄹ, △, ㅁ⁶⁾, 또는 일부 母音(二重母音도 포함)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된다.

- (8) 옷돌히 화에 나아 걸이떡(←걸-, 月釋 2:33)
 프리 어느 方을브터 이에 흘러 붓이노(←붓-, 능 3:80b)
 사르미 물게 물이떡(←물-) 붓이떡(←붓-, 救下 15b)
 매 마자 獄애 가도이거나(←가도-, 月釋 9:25)
 일후미 너비 들여(←들-, 釋 13:4)

6) ‘ㅁ’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이’가 통합되는 예들과 그 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술 2.3.2.3 참조.

가시에 떨어 모뎀 브리며(←피르-, 능 6:78)

발자힐 바다 남기 배여 性命을 모츨시니(←배-, 月釋 1:2b)

3) 예; -Vy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되며 수의적으로 ‘이’와 교체된다.

(9) 五通 메울 술위는 마근길 업스니(←메-, 月曲 43 b)

長常業報에 민여(←민-, 月釋序 : 3 b)

느릿 소내 쥐여 이시며(←쥐-, 月釋 1:11 a)

사르미게 미인 고돌(←미-, 蒙山 19)

사르미게 미우 고돌(←미-, 法語 5)

cf. 有情이 나랏法에 자피여 민여(←민-, 釋 9:8 b)

허는불 뵈는불 메우 돛귀돌(←메-, 月曲 38 b)

4) 리; ‘르’ 불규칙용언 다음에 통합되는데, 능엄경언해(1472) 이후에야 나타난다. 그 이전의 문헌에서는 ‘이’로 표기되고 있다.

(11) 오눌린 사르미(←가오누르-, 능 9:66)

濠梁에 혼쳐 블로물 보라(←브르-, 杜初 15:7)

5) 히; 有氣音, 시, 스을 제외한 무성폐쇄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된다.

(12) 발바닥 그미 자해 받드기 바키시며(←박-, 月釋 2:57 a)

東門이 도로 다티고(←단-, 月釋 23:80 b)

나랏法에 자피여(←잡-, 釋 9:8 b)

덕슨 蟹氣 | 민켓는 數에 나붓기눅다(←밧-, 杜初 8:45 b)

어려운 이리 모매 얼켓는 나라(←엷-, 杜初 16:17)

더 남기 네 모매 연쳐세라(←엷-, 杜初 15:3)

6) 기; 口, ㄹ, 스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된다.

(13) 즐겨 저저 하룻 모리 업도다(←줍-, 杜初 7:36)

못 우묵흔디 즐기눅다(←듭-, 杜初 6:42)

衆生이 굴반 鑊소배 드러 솟 글혀 숭기더니(←숭-, 月釋 23:81)

九龍이 모다 깃기스 불니(←깃-, 月曲 20)

이상의 교체형과 그 교체환경을 보면 15세기 피동접미사의 6종류의

표기는 선행하는 용언 말음의 음성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계(ㅣ, 이, 예, 리)의 교체환경⁷⁾에서 그러하며, 스,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선택되는 이형태가 각각 ‘히’와 ‘이’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기존에 분류했던 것처럼, 6 종류의 표기를 포괄하면, 용언 말음의 기저음소에 따라 몇몇 부류로 교체된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2.3. 먼저 ‘히’와 ‘이’계(ㅣ, 이, 예, 리) 이형태를 살펴보고 ‘기’를 검토하기로 한다.

2.3.1. 스과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전자의 경우에는 ‘히’가, 후자의 경우에는 ‘이’가 통합된다는 종래의 논의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15세기 국어에서 스, 츠은 그 음운론적 顯現方式에 있어 동일성⁸⁾이 포착되기 때문에 츠으로 끝나는 용언 어근 다음에서도 ‘이’가 아니라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分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무성폐쇄음 뒤에서 ‘ㅎ’이 독립적인 segment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음성형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ㅣ’가 통합되는 것으로 分析했던 종래의 논의는 표기에 집착한 표면적인 分析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7) 이렇게 다양한 표기를, 일단은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이 본고의 출발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부분 이 가운데 몇개의 이형태만 선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 선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ㅣ, 이, 예, 리’가 상호 교체되기 때문에 이들이 통합되는 각각의 환경을 분류해 낼 수가 없었던 점일 것이다. 이들을 아예 ‘이’ 하나로 단일화시킨다 하더라도 문제는 왜 이렇게 상이한 표기들이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표기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이’계 이형태로 묶은 다음, 뒤에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다. ‘ㅣ, 이, 예, 리, 히, 기’ 중 어느 것을 이형태로 간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2장의 주된 내용중의 하나이다.

8) 스, 츠은 훈민정음의 성모체제에서 치음에 배당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영역에서 조음된 파찰음이었으며, i, y 앞에서 구개음으로 되는 변이음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또한 스,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되는 겸양법 선어말어미도 모두 -줄-이었다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츠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본고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15세기 자음의 체계를 중시하는⁹⁾ 관점에서 ㄱ, ㄷ, ㅎ 등 有氣音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ㄱ, ㄷ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된다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ㅎ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히’가 통합된다고 보는 것은 검토를 요한다. 15세기에 ㅎ이 표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ㅎ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ㅎ+ㅎ은 당연히 ㅎ으로 나타나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피동형의 표기에는 ㅎ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세기에 ㅎ은 ㅎ과 최소대립쌍¹⁰⁾을 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偏在된 환경의 일부 어휘에만 한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¹¹⁾ 독립된 음소로 간주하기 어렵다. 더우기 ㅎ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어휘들의 표기에 있어서도, 각자병서가 폐지되기에 이르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ㅎ과 混記되고 있는 예들이 보이는 것이다.¹²⁾

(14) 櫻의 불 혀고(釋 9 : 30)

혀는 불 쓰는 불(月曲 106)

然은 불 혀 씨라(月釋 1 : 8)

9) 체계를 중시하는 우리의 관점은 Hockett(1955)의 ‘Pattern Congruity’ 원칙과 유사하다. Pattern Congruity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ckett(1955), Chen, S.B.(1975), Sommerstein(1977) 등을 참조.

10) 訓民正音解例 用字例에서 보여주고 있는 ‘혀’ (舌)와 ‘혀’ (引)는 진정한 의미에서 最小對立雙(minimal pairs)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들의 표면상의 환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혀’는 명사인데 반해서 ‘혀’는 용언 어간, 또는 부동사어미를 취한 용언인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에 나오는 용례들의 상당수는 최소대립쌍이 아니며, 그들에 굳이 용어를 붙인다면 최소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 ㅎ은 ㅋ 앞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설사 이 시기에 ㅎ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ㅎ’은 일부 편재된 어휘에만 한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ㅎ+ㅎ이 표면에서 ㅎ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ㅎ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된다고 보더라도 우리의 견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다.

(18) 부동사어미가 통합되는 경우

츠+아→차; 奔萊利花 | 물 우회 차 두퍼잇느니라(月釋 1 : 23)

뜯+아→타; 祿 해 탄 먹는(杜初 7 : 2)

쓰+어→써; 可히 써 天子의 받조왕적호니(杜初 7 : 13)

쓰+어→써; 써 브리리오(杜初 25 : 13)

다+아→다아; 減와 생패 다 다아(능 4 : 89)

(15)와 (16)은 파생의 층위에서, (17)과 (18)은 굴절의 층위에서 hiatus를 피하기 위해 어간의 ·, 一가 탈락하는 예들이다. (15)~(18)의 예들은, 용언어간의 ·, 一은 파생의 층위에서나 굴절의 층위에서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를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피(사)동접미사가 통합되는 다음의 예들에서는 용언의 마지막 모음인 ·나 一가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19) 無明 스대가리에 쓰일썌(月釋 14 : 7)

미러내어 擧薦호야 쓰이논디라(杜初 23 : 38)

사른미 백유미 어러우물(杜初 25 : 51)

노곤 일후미 竹出에 드러 스엿느니(杜初 24 : 1)

결국 ·, 一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를 만나게 되면 어간의 ·, 一가 탈락하지만, 유독 ‘이’계의 피(사)동접미사를 만나는 경우에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계 피(사)동접미사와의 통합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특이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계 피(사)동접미사와 관련된 이러한 특이성을 1) 형태론적 해결방안, 2) 어휘음운론적¹⁴⁾ 해결방안, 3) 형태음소론적 해결방안, 4) 음운론적 해결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가장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3.2.1. 형태론적 해결방안으로 경계나 범주표시에 의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계표시에 의한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동일한 파생층위에 속하는 부사화접미사, 명사화접미사의 경우와 피(사)동접미사의 경우가 상이한 음운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4)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Mohanan(1982)를 參照.

로 피(사)동접미사의 경우가, 용언의 ·, —탈락 현상에 예외라는 범주 표시에 의존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주표시는 단순히 분류학적 기술에 그치기 때문에, 음운행위를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순수히 음운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끌어오는 方法이어서 그만큼 많은 부담을 문법기술에 지우게 된다. 우리는 형태음소론적, 또는 음운론적 방안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시 이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3.2.2. 다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어휘음운론적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어휘음운론에서 전제로 내세우는, 음운규칙의 영역(domain)과 형태론의 영역에 어떤 합치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운행위의 차이를 층위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파생층위(derivation stratum)에 속하는 부사화접미사, 명사화접미사는 굴절층위(inflexion stratum)에 속하는 동명사어미, 부동사어미와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반해¹⁵⁾, 왜 파생층위에 속하는 피(사)동접미사는 부사화접미사나 명사화접미사와 다르게 행동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2.3.2.3.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방안은 형태음소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다. 이 방안은 金完鎭(1972)에서 시도된 바 있는 것으로, ·, —로 끝나는 용언에 부사화접미사가 통합될 때엔, 어간의 ·, —가 탈락하지만 피(사)동접미사가 통합될 때엔 어기의 ·, —가 탈락하지 않는 이유를, 부사화접미사의 형태음소는 yi 인데 반해,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음소는 i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부사화접미사의 형태음소인 yi의 y 때문에 선행하는 용언 어기의 ·나 —는 탈락되지만, 피(사)동접미사는 그러한 제약을 가하는 y를 缺하고 있기 때문에 ·, —가 탈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명사나 대명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 ·나 —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예들도 있고(어느, 그 등), ·나 —가 탈락하는 예들도 있어(스 또는 썸, 썸 등)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보여주는 ·, —탈락의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면, 용언에서는 피사동의 경우만 제외하면 ·나 —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체언에서도 ·, —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파생에서는 순정의 *i*를 포함하는 다른 모음 앞에서 용언의 *·*, *-*가 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굴절에서는 *·*, *-*가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게 됨으로써 파생과 굴절의 음운현상에 괴리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문법기술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피동접미사는 *i*이고, 부사화접미사는 *yi*라고 한다면, 순정의 *i*인 피동접미사는 *ㄷ*로 끝나는 용언 뒤에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데 *yi*인 부사화접미사는 선행음절말 *ㄷ*과 함께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차이점도 설명하기 어렵다. 더우기 이러한 차이는 *ㄷ*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피동접미사가 통합되는 경우와 사동접미사가 통합되는 경우 사이에도 보이는 것이다.

(20) 피동접미사 ; 예 (5) 참조

(21) 부사화접미사 ;

머리(←*머-*, 杜初 15 : 5), *ㄴ*노리(←*ㄴ-*, 杜初 21 : 28), 거츠리(←*거츨-*, 능 2 : 93), 갓*ㄴ*리(←*갓ㄴ-*, 능 2 : 12), 기리(←*기-*, 杜初 15 : 5), 드리(←*드-*, 杜初 6 : 21), *ㄷ*리(←*드-*, 月釋 8 : 97), 그우리(←*그울-*, 釋 6 : 30), 어더리(←*어딜-*, 능 5 : 40), 모더리(←*모틴-*, 法華 5 : 70)

셋째, 피동접미사가 *i*이고, 부사화접미사가 *yi*라면, 순정의 *i*인 피동접미사는 독립적인 음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인데 반해, *yi*인 부사화접미사는 선행음절의 모음과 이중모음을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음절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도 특이한 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굴절이기는 하지만, 순정의 *i*라고 할 수 있는 주격의 ‘*i*’나 *iy*라고 할 수 있는 지정사 ‘*i-*’는 선행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날 때 선행 형태소의 마지막 모음에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함으로써, 金完鎭(1972)에서 *yi*라고 본 부사화접미사와 행동을 같이 하고, *i*로 간주했던 피동접미사와는 그 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2) a, 피동접미사 ; 이어^이는, ^ㅍ일씨, ^ㄴ호^이여, 가도^이거나, 스^엿느니라.

b, 부사화접미사 ; 해(하-^이), ^ㄷ래(즈라-^이), ^오래(오라-^이), 내(나-^이)

c, 주격 ; ^네, ^데, ^공지, ^부배, ^흙배

d, 지정사 ; ^디라, ^네라, ^데오, ^전치니, ^내어니

마지막으로, $\beta > w$ 의 변화형인 w 가 부사화접미사 ‘이’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 형태요소 yi 의 y 때문이라고 한다면, 피동접미사 ‘이’ 앞에서도 $\beta > w$ 의 w 가 탈락한다면 피동접미사의 ‘이’도 yi 로 보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다음의 예는 피동접미사 ‘이’ 앞에서 $\beta > w$ 의 결과인 w 가 탈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3) 사르미 물게 들이며 불이며(불-, 敎下: 15b)

불인 사르미(←불-, 敎간 6: 70)

사동접미사가 통합된 예이긴 하지만 ‘더리이-, 누이-’ 등도 ‘이’ 앞에서 w 가 탈락하여 표면에서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이형태는 순수히 i 였기 때문에 어간의 \cdot 나 $-$ 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3.2.4.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순수히 음운론적인 층위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는 일이다.

15세기 표기법의 원칙은 음절 중심의 표기였다. 가령, ‘알-’(知)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알오, 알면’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아름, 아라’로 표기되어 충실하게 음절에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κ 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피동접미사 ‘이’가 오게 되면, 자음이 오는 경우처럼 용언말 κ 은 다음 음절로 이동하지 않고 용언의 마지막 음절에 고정되어 표기되는 것이다(예(5) 참조). 이렇게 용언말 κ 이 다음 음절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5세기 표기법의 원칙으로 보아, 피동접미사 ‘이’의 초성에 자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동접미사 ‘이’의 \circ 이 하나의 자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표기상의 특징은 李基文(1962)에서 논의된 특수어간교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circ 에 대한 李基文(1962)의 논의를 받아들여, 피동접미사 ‘이’의 \circ 을 fi 의 표기로 간주한다.¹⁶⁾

16) κ , Δ 으로 끝나는 용언이나 κ /르불규칙용언, Δ 불규칙용언의 어간말 κ 과 Δ 뒤에서 사동접미사의 표기 ‘이’는 fi 였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李基文(1972 b: pp. 15~27) 참조. 그러나 사동접미사의 경우에 κ 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이’가 아니라 ‘l’가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용례는 앞의 (6)을 참조) fi 가 통합되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된다. 대신에 피동접미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이’로 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1.3을 참조.

결국 용언의 \cdot , $-$ 가 피동접미사 ‘이’를 만나더라도 탈락하지 않는 이유는 \cdot , $-$ 와 i 사이에 자음 fi 가 개재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3.2.5. 이러한 관점에서 피(사)동접미사의 표기에만 나타나는 ∞ 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 는 지금까지, ∞ 가 출현하는 음운론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李基文(1972)에서는 “어중의 yy 또는 yi^{17} 에 나타나는 긴장된 狹窄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사)동접미사를 포함하는 구성에만 나타나는 偏在性을 설명할 수 없다. 가령 ‘히에’나 ‘드외온디라’와 같이, 어중의 yy 를 구성하는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 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許雄(1975)에서는 $/i, y, u/$ 의 된소리로 간주하였으나, 모음의 된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고, 설사 ∞ 을 $/i, y, u/$ 의 된소리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i, y, u/$ 의 된소리는 피(사)동사의 경우에만 가능한지 추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金完鎭(1971)에서 “ ∞ 는 그 앞에 pause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字形上 不可避하여 삽입된 \circ 의 앞에 \circ 를 再加한 것으로, 특수한 환경하에서의 juncture phoneme의 표기방법으로 간주하여, 다른 환경에 있어서의 보통 \circ 와 同價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음절 사이에 pause를 상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해결로 보이고¹⁸⁾, 따라서 juncture phoneme설정의 필연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동접미사 ‘이’가 fi 였으리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내려보기로 한다.

15세기 표기체제에서, fi 에 대한 표기는 $alif$ 의 기능을 갖는 \circ 와 같았기 때문에 어중에서 피(사)동접미사를 포함하는 $XVyS\ fiS(y)V$ 연결체를, $XVyS(y)V$ 연결체와 구분한 표기는, 각각 ‘티이여’ ‘티여’와

17) 安秉禧(1978)에서는 ‘뫼-’의 예가 발견되기 때문에 w 를 선행하는 환경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뫼-’는 ‘뫼-’에 사동접미사가 통합된 것으로 ∞ 의 출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피동접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해 두기로 한다. 아마도 ‘뫼-’ 다음의 fi 에 대신 ‘우’가 덧붙여진 형태에서 hiatus를 피하기 위해 y -glide化 現象을 일으켰으나, ‘뫼-’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생긴 표기가 아닌가 여겨진다.

18) 鄭然燾(1987)에서도 金完鎭(1972)의 juncture phoneme을 받아들이는 견해를 볼 수 있다. 차이점은 \circ 를 空音素로 보고 ‘空音素 앞에 juncture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위와 동일한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음의 重出로 인해 hiatus가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y가 탈락하여 음절이 하나 없어진 $XVy\$fiyV$ 와 원래 피동접미사가 없는 $XVy\$yV$ 를 구분하여 표기할 수가 없게 된다. y뒤에 표기되는 〇은 fi를 나타내기도 하고 zero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여’와 같은 표기를 놓고, $m\lambda y\$y\epsilon$ 의 표기인지 $mvy\$fiy\epsilon$ 의 표기인지 구분할 방도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피(사)동접미사 fi의 fi를 표시해 주기 위하여 기존의 〇에 〇을 再加함으로써 $m\lambda y\$fiy\epsilon$ 를 $m\lambda y\$fi(y)\epsilon$ 와 구분시켜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의 표기에서 앞의 〇은, 피(사)동접미사 fi에서의 fi를, 뒤의 〇은 원래 alif로서 음절의 초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zero에 대한 표기로 이해되는 것이다. ∞은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서 fi를 표시해 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기였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용자해에서 ‘피여’와 ‘피여’를 구분시켜 주는 대립쌍으로 제시하였지만 음소로서 존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初聲體系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된다.

2.3.2.6. 피동접미사 ‘이’가 fi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경에서 ‘이’가 fi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15세기에 이미 선행 용언의 마지막 모음과 이중모음을 형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미 fi는 일부 환경에서 소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李基文(1972a, b)의 논의대로 (1) r__, (2) z__, (3) y__의 환경에 있는 피(사)동접미사 ‘이’ (또는 예)의 〇만 fi音價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동접미사 ‘이’계 이형태는 i, fi, ri(능엄경언해 이후 r다음의 위치에서)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3.3. 이제 지금까지 보류해 두었던 시, 스 또는 口, ㅍ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되는 피동접미사를 논의하기로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시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ㅣ’가, 스, ㄹ, ㅍ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기’가 통합된다고 기술되어 왔다.

2.3.3.1. 시으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잇기-’에 대한 分析可能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24) a, ㅍ-+이→잇기-

- b, 잇그-+이→잇기-
- c, 잇-+기→잇기-
- d, 잇-+기→잇기-

(24 a)는 종래의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논의를 토대로 하면 그다음에는 ‘히’가 통합되어 ‘잇기-’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24 a)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24 b)의 分析도 거부된다. ‘잇그-’에 피동접미사 ‘이’가 통합되면 어간의 ‘-’모음이 탈락되지 않으므로, ‘잇기-’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4 c)의 분석도 (24 a)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한 분석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24 d)와 같이 ‘잇-’의 어말자음군이 ㅅ으로 단순화된 다음, 거기에 ‘기’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ㅅ은 무성마찰음이기 때문에 앞서의 무성장애음 뒤에 ‘히’가 통합된다는 우리의 논의를 해치지 않는다. 또한 15 세기에 서울 어말자음군으로 가지고 있던 어사들은 (25)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 과정을 거쳐 ㅅ만 실현되면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24 d)의 분석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5) 셋더 아니호문(←셋-, 月釋 1: 3 a)
道닷는 사람(←닷-, 月釋 2: 14 b)
 外道는 밧道理니(←밧-, 月釋 1: 9 a)
喜는 깃불 씨니(←깃-, 釋 9: 6)
 우리 들히 至極 호보코(←호-, 月釋 14: 76)

(24 d)의 분석을 받아들이면, ㅅ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기’가 통합되는 경우도 포괄하여 기술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2.3.3.2. ㅁ이나 ㄹ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피(사)동접미사가 통합되는 ‘줍기-’에 대한 분석도 다음의 3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 (26) a, 줍-+기→줍기-
- b, 줍그-+이→줍기-
- c, 줍기-+이→줍기-
- d, 줍기-+기→줍기-

(26 a)는 종래의 분석방법인데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26 b)는 ‘줍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6 c)는 그 다음에 ‘히’가 통합되

어 ‘즈키-’가 도출되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즈기-’에서 어말자음군 단순화를 겪어 ‘즈-’이 된 다음, 거기에 ‘기’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는 (26d)는 (26a)와 다를 것이 없지만, 15세기 ㅁ(ㄹ)을 가지는 모든 용언이 ㄱ을 말음으로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ㄱ+기’이 ㄱ으로 실현되었는지 자세한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ㄹ을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26a)의 분석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4. 결국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에는 “‘이’계와 히, 기”가 있으며 ‘이’계에는 i, fi, ri, ‘히’는 hi, ‘기’는 ki로 실현되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환경에 따라 교체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27) i;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fi; y, r, (β), z로 끝나는 용언 다음

hi; 무성폐쇄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단, 시은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겪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ri; r 뒤의 fi가 ri로 변화함으로써 15세기 후기에 출현함

ki; ㅁ(ㄹ포함), ㅅ(ㅅ포함)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Ⅲ. 피동접미사와 관련된 음운변화에 대한 추론

3.1.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은 굴절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결양법 선어말어미 {-습-}의 통합과는 그 교체 조건에서 相異한 特性을 보여준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습-}의 통합은 선행하는 용언 말음의 음성적 환경에 지배되었으나 15세기 피동접미사의 경우에는 그 형태음소에 지배되었던 것이다. 가령 15세기에 ㄷ, ㅅ, 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결양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는 -줍-이 선택되었고, ㅅ이나 ㅎ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술-이 선택되었으나, 17세기 국어를 반영한 仁祖大王行狀과 癸丑日記에서는 ㄷ, ㅅ, 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물론, ㅅ, ㅎ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줍-이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ㅅ, ㅎ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통합되는 결양법 선어말어미의 이러한 변화는 음절말(또는 어간말) 자음의 중화현상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로서, 15세기에 음절말 ㄷ, ㅌ, ㅊ은 [tʰ]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줄-이, 음절말 ㅌ, ㅎ은 [s]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술-이 통합되었으나, 17세기에는 음절말 ㅌ과 ㅎ도, ㄷ, ㅌ, ㅊ처럼 [tʰ]로 중화되어 실현되었기 때문에 -줄-이 통합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⁹⁾

그러나 피동접미사의 통합은 사정이 다르다. 15세기 음절말 치음의 중화현상에 따라 피동접미사의 이형태가 통합되었다면, 스이나 ㅊ으로 끝나는 용언, 즉 ‘밧-’, ‘쫘-’ 다음에 피동접미사가 통합되면, 15세기 문헌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밧치-, 조치-’가 아니라 ‘밧티-, 조티-’로 실현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밧티-, 조티-’와 같은 표기는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밧치-’와 ‘조치-’만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15세기에 피동접미사의 통합이 선행하는 용언말 자음의 형태음소에 지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형태음소에 지배되는 이유는, 용언말 자음의 중화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피동접미사의 통합규칙이 형성되었고 그 통합규칙은, 음절말 자음의 중화현상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피동접미사의 통합은 15세기 이전의 음운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ㅍ, 스을 마지막 자음으로 가지고 있는 용언이나 ㄷ불규칙용언에 통합되는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을 통해, 15세기 이전 시기의 음운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ㅍ이나 스은 휴지나 무성자음 앞에서 각각 ㅍ과 스으로 中和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러한 음운현상에 순응하여 피동접미사의 이형태가 통합되었다면, ‘ㅍ-’ (踏)이나 ‘앗-’ (奪)의 피동사는 ‘ㅍ피-’와 ‘앗기-’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ㅍ피-’와 ‘앗기-’와 같은 피동사는 15세기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고 ‘ㅍ이-’와 ‘앗이-’와 같은 형태만 보일 뿐이다. ㄷ불규칙용언인 ‘들-’ (聞)의 경우에도 ‘드티-’는 보이지 않고 ‘들이-’만 발견될 뿐이다. 피동접미사의 통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통해,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피동접미사의 두 이형태가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소위 불규칙용언의 경우에, 왜 특정의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피동사만이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피동사에 나타나는 ㅍ과 스이 15세기 뿐만

19) 음절말 치음의 음성적 실현과 {-술-}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周彌(1988)을 參照.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에도 음소로 존재했었다는²⁰⁾ 內的證據(internal evidence)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음절말 스, 츠이 [tʰ]로 中和되지 않고 파열되던 시기에 피동접미사가 통합되어, 15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ㅍ이나 △이 ㅂ이나 ㅅ으로 중화되지 않고 β나 z로 실현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β와 z에 대한 내적증거는 *γ와 하나의 유성마찰음 계열을 형성하는 것으로, 15세기 이전의 어느 이른 시기에 유성마찰음이 하나의 계열로서 존재했었으리라는 李基文(1962, 1972 a, b)의 논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과 관련하여, 이른 시기에 *δ가 존재했었는지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추론도 할 수 없다.²¹⁾ ㄷ불규칙용언의 피동형에 보이는 ㄹ이 *δ의 변화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2.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이 항상 용언말자음의 형태음소에 지배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3.1에서 논의한대로 피동접미사의 이형태는 거의 모두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어 통합되었지만, 유독 서울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의 경우에는, 자음군단순화 과정을 통해 ㄱ이 탈락된 다음, ㅅ 뒤에 올 수 있는 ‘기’가 이형태로 선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된 것이 아니라, 표면의 음성형에 따라 이형태가 통합된 것으로, ㄹ으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에 ‘히’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ㅅ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되는 이형태 통합의 특성은 다음의 두 방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5세기 이전의 국어에서 *γ와 관련된 ㄱ의 특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즉 피(사)동접미사의 기원적인 어형이 *yi(후술 3.3 참조)였다고 한다면

20)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로 李基文(1972 a, b)를, 方言을 통한 外的證據(external evidence)에 대해서는 崔明玉(1978)을 參照.

21) 그러나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y위의 ㄷ~ㄹ의 交替에 있어서나 현대국어 ㄷ불규칙용언의 기술품을 위해 편의상 δ를 사용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시의 ㄱ과 *ㄱ이 비슷한(혹은 동일한) 영역에서 조음되었을 것인데, 15세기 이전의 어느 이른 시기에 유성마찰음 *ㄱ과 관련되는 어떤 제약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ㄱ이나 리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사동접미사의 이형태로, 피동접미사의 경우와 달리 ‘ㄴ’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접근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고대 국어의 어간말 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²²⁾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피동의 경우에도 ㄱ이나 리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히’가 선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직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두번째로 가능한 접근은 15세기 이후의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의 발달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15세기까지 매우 규칙적으로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던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이, 음절말 자음들의 상이한 음운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점차 표면음성형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형태음소에 지배되는 규칙으로 남지 않게 되는데, 그 초기의 모습이 시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서의 이형태 통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 국어에서 피(사)동접미사는 15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유추(analogy)현상에 의해, 더 이상 음운론적으로 지배되는 이형태 통합이 아닌데, 이미 15세기에 시으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에 피동접미사의 통합이 표면음성형에 지배되었다는 점에서 형태음소에 지배되던 이형태 통합규칙이 무너지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안은 시이 자음군이고 ‘ㄱ’ 이형태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태음소에 지배되던 통합규칙이 표면음성형에 바탕을 두는 다양한 유추작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근대국어, 현대국어의 경우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첫번째 방안과 별개의 접근방안이 아니라 상호관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서 보여주는 피동접미사 통합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세기 이전과 그 이후의 국어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3.3. 사동접미사와 피동접미사의 상사성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피동

22) 국어의 어중·어말 ‘ㄱ’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 李賢熙(1987)을 참조.

접미사의 기원적인 단일형에 대하여 李基文(1972 b : pp. 94~95)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李基文(1972 b)의 논의를 따라 피동접미사를 * γ i 로 재구하게 되면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는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 (29) a. * γ >fi / 유성음____ (口제외) \Rightarrow fi
 b. * γ >h / 무성폐쇄음____ \Rightarrow hi
 c. * γ >k / 스, ㅁ____ \Rightarrow ki

(29 a)는 ㅁ을 제외한 유성음 다음에서 * γ 가 fi 로, (29 b)는 무성폐쇄음 다음에서 * γ 가 h 로, (29 c)는 스과 ㅁ 다음에서 * γ 가 k 로 변화함으로써 * γ i에서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fi, hi, ki가 分化된 과정을 보여준다. fi에서 fi의 변화에 따라, 다시 15세기의 이형태 i, ri는 다음과 같이 分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0) a. fi>phi / 모음____ \Rightarrow i
 b. fi>r / ㄹ____ \Rightarrow ri

IV. 結 論

4.1. 음운론적으로 조건지어진 共時的인 이형태들의 상호관계를 通時的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교체환경을 공시적으로 分析하고 나서 그들의 分化過程을 통시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논의한 내용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4.2. 먼저 序論에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의 相似性和 相異성을 논의하고 피동접미사만을 본고의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교체환경을 共時的인 觀點에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체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서서적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分析한다면 ㅅ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도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分析해야 체계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유기음으로 끝나는 용

언 다음에도 ‘히’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 일부의 환경(入, 시, 口, ㄹ으로 끝나는 용언)을 제외하면, 무성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히’가, 유성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는 ‘이’계 이형태가 통합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계 이형태는 ·, 一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통합되더라도, 선행하는 용언의 ·, 一가 탈락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바, 그 이유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음가가 fi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피동접미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특이한 사실, 즉 ‘이’계 이형태 앞에서 용언의 ·, 一가 탈락하지 않는 이유, 피(사)동접미사에만 나타나는 ‘에’의 표기, ‘물이-, 쉰이-’와 같은 표기의 출현 이유 등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fi는 15세기에 y, z, r 뒤에서만 제 음가를 유지하였다는 李基文(1972 a, b)의 논의를 바탕으로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계 이형태로 i, fi, ri가 析出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入, 시, 口, ㄹ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기’가 통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논의한 결과,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교체환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었다.

i;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fi; y, r, (j), z로 끝나는 용언 다음

hi; 무성폐쇄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단 시은 자음단순화를 먼저 겪기 때문에 ㅅ으로 끝나는 용언과 같이 행동함)

ri; r로 끝나는 용언 다음(단, 15세기 후기에 출현함)

ki; ㅁ(ㄹ), ㅅ(시)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4.3. III장에서는 피동접미사와 관련되는 음운사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은, 표면음성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고 있었다. 이것은 피동사 형성 규칙이 15세기 이전의 어느 이른 시기에 생겼고, 그 당시의 규칙이 15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국어 불규칙용언의 15세기 어형으로 보아 두 형태의 피동사가 가능한데 특별히 하나만 허용되었던 이유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ㅁ, ㅅ이 15세기 이전에 음소로 존재하

였다는 內的證據를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 방식이, 항상 선행하는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시을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은, 자음군단순화를 거친 후 이형태가 선택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는 다른 모든 경우와 달리, 표면형에 지배되는 특이한 통합이었다. 이 경우 용언말 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또한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에서도 유독 ㄱ을 말음으로 가지는 경우에 'ㅣ'가 통합되는 특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대국어에서의 ㄱ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이유가 접근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5세기 이후에 점차 용언의 형태음소에 지배되는 교체방식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유추현상이 작용하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통합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논의는 보류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李基文(1972 b)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동접미사의 기원형을 *ʔi로 재구한 다음, 그 이형태 분화과정을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 a) *ʔi > fi / 유성음 ____ (口제외)
- *ʔi > hi / 무성폐쇄음 ____
- *ʔi > ki / ㅅ, ㅁ ____
- b) fi > φ / 모음 ____
- fi > r / ㄹ ____

즉 a)에 의해 fi, hi, ki가, fi에서 fi의 변화에 따라 i, ri가 분화되어 15세기에는 다섯 가지 이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4.4. 이상에서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分化過程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아직 남은 문제는 산적해 있다. 사동접미사와의 불규칙성과 관련하여,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교체환경에 관련되는 通時的 音變化의 시기 추정 작업과 아울러 15세기 이후의 변화과정은 논의된 다음에라야 피동접미사의 통시적 발달 과정이 하나의 축선

상에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 통시적인 변화를 다룬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 아직 초보적인 논의에 그쳤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무척 많다. 시일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姜信沆(1987), 「訓民正音研究」, 成大出版部.
- 金星奎(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77호.
- 金完鎭(1957), “原始國語 子音體系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 3호.
- _____ (1964), “中世國語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解釋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 _____ (1972a),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語學研究」 8·1, 서울大 語學研究所.
- _____ (1972 b), “形態論的 縣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 11,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_____ (1973), “國語 語彙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 金周弼(1988), “中世國語 音節末 齒音의 音聲的 實現과 表記”, 「國語學」 17, 國語學會.
- 南廣祐(1962), “사동·피동형의 역사적 고찰”, 「學術院論文集」 3, 學術院.
- 박창원(1984), “중세 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 「國語學」 13, 國語學會.
- 宋基儀(1983), “派生語形成과 通時性的 問題”, 「國語學」 12, 國語學會.
- _____ (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對한 音韻論的 考察”, 「國語學」 16, 國語學會.
- 安秉禧(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國語研究」 7(1978年 塔出版社 再刊).
- _____ (1967), “韓國語發達史(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大出版部.
-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對하여”, 「震檀學報」 35, 震檀學會.
- _____ (1963), 「國語表記法의 歷史的 研究」, 韓國研究叢書 18, 서울大 韓國研究所.
- _____ (1972 a),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_____ (1972 b),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1977年 塔出版社

再刊).

- 李秉根(1975), “音韻現象과 非音韻論的 制約”, 『國語學』3, 國語學會.
——(1988), “訓民正音의 初終聲體系”,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李相億(1970), “使動·被動 語幹 形成 接尾辭에 대한 多角的 考察”, 『語文論集』21, 高大 國語國文學科.
李崇寧(1981), 『改訂增補版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李賢熙(1987),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4, 한신대학.
崔明玉(1978), “ㄹ, △와 東南方言”, 『語學研究』14.1, 서울大 語學研究所.
——(1988), “國語 UMLAUT 의 研究史的 檢討—共時性和 通時性的 問題를 中心으로—”, 『震檀學報』65, 震檀學會.
韓在永(1984), “中世國語 被動構文의 特性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61.
——(1985), “中世國語 聲調의 一考察”, 『國語學』14, 國語學會.
許 雄(1964), “西紀 15 世紀 國語의 使役·被動的 接辭”, 『東亞文化』2,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hen, S.B.(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Pan Korean Books Co.
Hockett. C.F.(1955), *A Manual of Phonology*, Waverly Press, INC., Baltimore.
Jeffers and Lehiste(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ehman, W.P.(1968), “Saussure’s Dichotomy between Descriptive and Historical Linguistics”, *Directions For Historical Linguistics: A Symposium*, W.P. Lehman and Y. Malkiel(ed),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London
Mohanani, K.P.(1982), *Lexical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Bloomington.
Sommerstein, A.H.(1977), *Modern Phonology*, Edward Arnold(Publishers) Ltd London.